

계 열 문 항 1

<가>

아! 봉당이란 이름이 생긴 지는 벌써 오래다. 옛적 구양수(歐陽修)의 글을 보면 봉당이란 멀리 요·순 임금과 은·주 왕조 때부터 시작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온 나라 선비가 전부 봉당에 참여해서 둘, 셋, 넷으로 나뉘어 이백여 년의 오랜 세월을 지나도록 사(邪)와 정(正), 역(逆)과 순(順)의 분별에 뜻을 합하지 못하고 또한 분명히 정론을 세울 수도 없었던 것이 바로 우리 조선이다. 그러니 또한 고금의 봉당을 통틀어서 조선의 봉당이 지극히 크고 지극히 오래고 지극히 말하기 어렵다고 하겠다. 그 까닭은 여러 가지가 있다.

첫째, 도학(道學)을 너무 중히 여겼다. 본래 천하의 평범한 사람들은 각자 몸뚱이가 따로 있고 저마다 그 마음이 있어서 자기에게 이롭게 하려 하기 마련이다. 이를 근심하여 옛 성현들은 예절을 높이고 착한 것을 밝혀서 사나운 마음과 쟁탈하는 기운을 이겨내도록 가르쳤다. 세력이나 권력을 두려워해서가 아니라 사적인 욕심을 이기는 도덕의 학문을 배워서 되는 것이다. 그런데 평범한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도학의 이름을 자처하는 것도 옳지 못한 것인데, 더구나 보통 사람들을 거느리고 도학의 거짓 이름으로 봉당을 이뤄 시대를 호령하고 제 잘못을 타인이 말하지 못하게 한다. 지위가 높아지고 세력이 커지는 것은 누구나 바라므로 마침내 쟁탈하는 세력이 일어나 화란(禍亂)이 일게 된 것이다. 보통 사람들과 쟁탈하는 자들은 반드시 보통 사람이니 그 화(禍)가 한 때이지만, 도학이 있는 사람들과 쟁탈하는 자들은 반드시 도학이 있는 사람들이기에 그 화는 무궁할 것이다.

둘째, 명분과 의리를 너무 엄하게 여겼다. 예로부터 봉당 싸움(朋黨之爭)에서는 스스로 군자(君子)라 일컫고 배척할 사람은 소인(小人)으로 여겨서, 뒤에 봉당을 논하는 사람들이 그러한 행태를 병증이라 여겼다. 지금은 그러하지 않을까? 남을 소인이라고 이름 붙여 깎아내리는 데 만족하지 않고 그 조상까지 오랑캐의 부류로 몰아 버린다. 그러므로 명분과 의리의 설을 빌려서 전부 난적(亂賊)으로 몰아붙인 뒤에 비로소 유쾌하게 여기니, 이야말로 어질지 못함이 심한 것이다.

- 이견창, 『당의통략』, 「원론」 초역(抄譯)

<나>

세계적으로 정치 양극화가 큰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정당에 대한 시민들의 '지지/반대' 태도는 정치적 판단에만 한정되지 않고 그들의 일상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시민들은 장학금 수령자를 결정하거나 직장의 동료가 될 사원 또는 데이트 상대를 선택할 때 그가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지를 고려한다. 그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어떤 정당을 지지하는지에 따라서 그들의 도덕적·지적 수준을 판단하는데, 자신과 지지하는 정당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을 열등한 존재로 여긴다. 각 정당 엘리트의 이념적 양극화에 더해, 일반 시민들의 정당에 대한 태도에서 나타나는 정서적 양극화의 결과, 현재 미국 사회는 정치 영역을 넘어서 비정치적 영역에까지 당파적 판단이 침투하는 현상이 일상을 지배하고 있다.

미국 정치에서 양극화가 어제오늘의 이야기는 아니다. 19세기 중반에 양당제가 확립되면서 미국 사회는 중요한 선거 때마다 정당 간의 대결로 소란스러웠다. 하지만 그것은 일회적이었을 뿐 시민사회를 분열시킬 만큼 장기간 지속하지는 않았다.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대표하는 자발 결사체의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되고 언론 기관의 수가 많아서 다양한 견해가 표출되는 데 유리했고, 이렇게 생성된 여론은 정당을 통해서 정치 사회에서 논의되었다. 소수의 견해를 존중하는 시민 덕성, 그리고 정치적 상대자를 정당한 자격을 가진 경쟁자로 인정하는 정치문화는 미국의 정당 정치가 민주주의와 국민 통합에 기여하게 했다. 그런데 20세기 후반 이후 경제·사회 변동의 결과로 공동체에서 개인으로 관심사가 전환하면서 미국 사회를 지탱하던 결사체 활동이 쇠퇴하고, 신뢰와 협력 그리고 네트워크 같은 사회자본이 부식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변화는 미국 정당 정치의 토대를 이루고 있는 당원 등 열성적 지지자 집단의 행태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오늘날 각 정당의 지지자들은 허위 정보와 가짜뉴스의 적극적인 생산자이자 소비자, 그리고 유포자가 되었다. 양극화된 정치 환경이 자리를 잡으면서 각 정당의 열성적 지지자들은 상대방 정당을 악마화하고 민주주의 국가에서 없어져야 할 대상으로 바라본다. 이들은 과거처럼 주어진 선택지 내에서 자신의 성향에 맞는 상품(곧 정당이나 입후보자)을 고르는 수동적인 소비자로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지지할 만한 정치인을 스스로 찾아내서 띄우고 선거에서 그 정치인과 정당의 승리를 위해서 마치 자신들이 선거운동원인 양

적극적으로 다른 유권자들을 설득하거나 협박한다. 따라서 극단적 정파들이 디지털 공간에서 가짜뉴스를 공유하는 행위는 ‘무지’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승리를 위한 가치 있는 전략적 행위로서 의미 부여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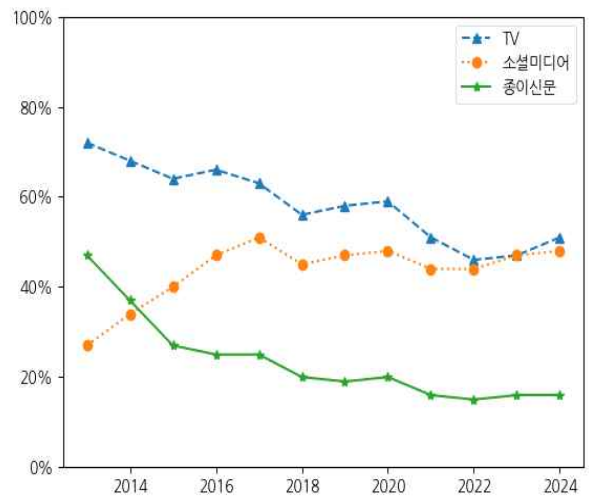
탈진실(post-truth)은 정치 과정에서 진실이 여론 형성과 정책 결정에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지 않는 상황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에 따라 주요 정치 행위자들은 정파적 선호와 감정에 따라 거짓말에 더 관대해지게 되었다. 오늘날 탈진실 현상의 확산은 새로운 디지털 기술의 등장과 관련되어 있다.

대중들은 더 이상 전통적인 미디어를 통해서 특정한 방식으로 제작된 뉴스를 소비하지 않는다. 정보통신의 디지털 혁명을 통해서 정보 획득과 의견 교류가 쉬워지면서 대중은 이제 뉴스의 수동적 소비자에서 적극적 유통 또는 생산자로 변화하게 되었다. 그런데 디지털 혁명은 탈진실을 조장하는 부정적 결과를 낳기도 했다. 딥페이크 기술을 통해서 쉽게 원본 영상을 다른 영상으로 조작하거나 아예 새로운 영상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면서 디지털 도구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기 시작했다. 무엇보다도 탈진실 확산에 가장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것은 본래 사용자 맞춤형 상품 추천을 위해 개발된 알고리즘이다.

오늘날 구글, 페이스북, 유튜브 등 인터넷 플랫폼은 이용자의 검색 기록, 시청 기록 등을 활용하여 이용자들이 보고 싶어 할 정보들을 미리 선택해 보여 준다. 이는 이용자 편의를 위해서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정보 제공 방식에 따라서 이용자들에게 선별된 정보만 주어지는 현상, 곧 ‘필터 버블’(filter bubble)이 발생한다는 데 문제가 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유튜브에서 특정 정치 성향의 영상을 구독하고 반복 시청할 경우, 1주일도 되기 전에 다른 성향의 영상은 추천 목록에서 거의 사라지는 것이 확인되었다. 일단 필터 버블이 만들어지면, 가짜뉴스는 훨씬 더 쉽게 확산하게 된다. 전혀 사실이 아닌 내용조차 필터 버블 안에서 반복 노출되면 사용자는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어렵게 된다. 필터 버블 안에서는 정보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비판할 다른 성향의 정보가 없기 때문이다. 트위터 이용자 2,300명의 뉴스 이용 데이터 50만 건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대중들은 지지 정파에 유리한 내용의 기사가 실제로는 거짓일지라도 진짜 뉴스로 수용하는 관대한 태도를 보인 데 반해, 자신의 정파에 불리한 기사에 대해서는 진짜 뉴스임을 인지하고도 음모론이나 가짜뉴스로 몰아서 부정하는 행태를 보였다.

답변자 성향		답변 결과	지지 정당은 좋은 아이디어가 ~			상대 정당은 좋은 아이디어가 ~		
			매우 많다.	많은 편이다.	적다. (또는) 없다.	매우 많다.	많은 편이다.	적다. (또는) 없다.
공화당 지지	전체		23	52	25	2	15	83
	강함		31	53	16	1	11	88
	약함		10	51	39	2	21	77
민주당 지지	전체		22	53	25	2	20	78
	강함		30	55	15	2	20	78
	약함		10	51	39	2	21	77

<표 1> 2023년 미국인의 지지 정당별 각 정당에 대한 태도 (단위: %)



<그림 1> 미국인의 매체별 뉴스 이용률(복수 응답)

1-1. <가>의 ‘붕당 싸움’과 <나>의 ‘정치 양극화’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서술하시오. (300±30자)

1-2. <표 1>과 <그림 1>을 각각 해석하고, 이러한 현상을 <나>와 <다>를 통해 설명하시오. (600±60자)